

목숨을 걸 만한 지위

고린도전서 7:17-24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회적 지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계급, 위치, 또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수평적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려 할까요?

- 전문직 경력
- 부의 축적
- 소셜 네트워킹
- 소셜 클럽 회원
- 학력
- 건강
- 외모
- 운동 능력
- 예술적 재능
- 언어 능력
- 종교
- 민족
- 자원봉사
- 자선 활동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는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 또는 관계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예: 직업이나 더 많은 사회적 자본 같은 것을 위해) 저의 사회적 지위를 과장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제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비참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끝나는 걸까요? 이 끝도 없는 사회적 지위를 쫓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북미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할 때, 바울은 충격적인 말들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여덟 구절(슬라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당된"대로 또는 "배분된"대로)

-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조건” 그대로 또는 “삶의 여건” 그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직장을 바꾸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독신이라면 결혼을 하거나, 승진을 받아들이거나, 새 집을 사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이 여덟 구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7절-24절은 바울이 7장에서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을 다루는 더 큰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들은 기혼자, 이혼자, 그리고 미혼자에게 신학적 근거를 주는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근본적인 것,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기본 원리(17절)
 - b. 민족-종교적 예시(18-19절)
 - c. 기본 원리(20절)
 - d. 사회적-법적 예시(21-23절) - 예외 있음
- e. 기본 원리(24절)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부르시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여덟 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분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외부 상황을 초월하고 변화시키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처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에게만 그러니까? 불공평합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한 권고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처럼 서로 다른 결혼 및 가족 환경, 지리적 위치, 민족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회 계층,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선 어떤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삶의 상황이 어떻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실천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 그대로 지내라

지금 성령으로 거룩해진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7: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없애다"라는 동사는 할례의 흔적을 가리는 시술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인들은 할례를 혐오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많은 일들이 공중목욕탕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공중목욕탕이나 동네 체육관에 갈 때마다 누가 유대인인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에서 더 많은 사업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할례를 은폐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왜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할례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거나 영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교회 안의 이방인, 즉 비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서의 종교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할례를 받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음식 율법, 안식일, 성전 순례, 히브리 찬양 등을 더함으로, 유대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더 많이 환영 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규정을 외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영적으로 더 좋아지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2. 민족적-종교적 지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윌링던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그들의 의식과 음식 규칙을 준수하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

또한, 윌링던에서는 브라질 사람이면, K팝을 춤출 필요가 없고, 한국인이면, 삼바를 마스터할 필요도 없습니다. 뻗뻗한 백인이면, 남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춤을 출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니티 댄스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춤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이번 펜타코스트(오순절) 축제에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메노 나이트 댄스 공연 사진입니다. 내년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은 바울 같은 유대인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할례가 전부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분명하고 눈에 띄는 표시였습니다(창세기 17:1-14).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변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민족, 종교적 배경, 사회 계층, 성별, 또는 관계적 위치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이전의 모든 분류를 무효화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26-29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일 수 있었고, 이방인은 이방인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혼, 독신 생활, 교육, 외적인 종교적 표식(타투), 승진 등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에 뭔가를 더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만으로 은혜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형태의 신분 추구가 허용된다면,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구절,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기억해 봅시다.

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히브리 성경의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37-39

-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18-20

-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2)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위를 인식하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핵심 요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20년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 삶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들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 우리의 민족적 배경과 역사, 삶의 경험, 교육, 전문적인 훈련 등을 통해 하나님께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구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2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혜롭거나 유능하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지위를 추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들은 그들이 세상의 지위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짓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삶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은혜만으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현재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예수님 제자로서 살라는 부르심에 방해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위를 결코 높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예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로만 본다르추크는 웹 개발자입니다.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그는 장로, Discovery 리더, 그리고 러시아어 사역 리더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삶의 여건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대니 리는 EA 스포츠의 visual experience 디자이너입니다.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그는 장로, Discovery 리더, 그리고 한국어 사역 리더로 계속 봉사하면서도, 삶의 여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디안토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그도 삶의 환경의 변화 없이, Discovery 리더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어니 카시마는 은퇴하신 교장선생님입니다.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그는 윌링던 지역 아웃리치 사역을 감독하면서 활발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루벤 하인은 오랫동안 장로, Discovery 리더, 그리고 스페인어 사역 리더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는 보안 운영 분석가였지만, 현재는 글로벌 선교팀에서 전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조건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위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노예와 자유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는 고린도 도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고, 3분의 1은 자유인이었습니다.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바울, 걱정할 거 없다고요? 본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니 그게 쉽겠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노예 제도가 17세기에서 19세기 북미의 노예 제도와는 달랐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은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책임을 맡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은 대개 주인이 허락해야 했는데, 주인이 노예에게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안의 노예들은 보통 30세가 되면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고 나서도 이전 주인을 위해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안에서 노예가 계속 노예였을까요? 그런 의미였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의 삶이 회심 후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사역, 관계, 그리고 물리적 위치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괄호 안의 단어는 예외사항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하신 것이 아니며,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율법, 즉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3. 사회적, 법적 지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노예 신분 이라면,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삶의 그 어떤 환경도 첫 번째 소명,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는 잡으세요.

당신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제자라는 여러분의 가장 중심되는 정체성에 굳건히 뿌리를 두세요. 삶의 환경을 바꾸기 보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삶의 최고의 기쁨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간적인 열망에 이끌리기보다 여러분의 야망과 열정을 예수님과 그분의 목적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구절은 왜 우리가 사회적 또는 법적 지위에 주로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자의 핵심 정체성은 "주님 안에" 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혹은 지위의 표시)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법적, 학문적, 관계적, 가족적, 국가적 등)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께 충성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위는 완전히 다른 가정,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곧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브라질에서 약 5년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정체성은 저에게 매우 실감 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적응해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브라질 사람이 아니었지만, 점점 더 캐나다인답지 않게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저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을까요? 제게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이것이 여러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바울 메시지의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4.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표현은 고린도의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린도는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하다고 여기셨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지위를 위해 그분이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신의 신분을 벗으셨습니다. 신분 사다리를 오르려 하기는 커녕 오히려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5-8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신분 상승을 추구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갈망하며, 신분 상승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는 가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그분께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대가로 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에,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 당신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 당신은 택함을 받은 왕같이 거룩한 자입니다
- 당신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세상의 기준과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노예가 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기본 원칙을 세 번째로 반복합니다.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임재 안에” 또는 “하나님 앞에” 거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이 우리의 집입니다.

<묵상 시간>

세상의 기준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에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격을 값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이라는 진리로 여러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겨보십시오.